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It's JEJU
제주마씸


#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86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음력 3월 21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 재외동포청 뺏긴 제주도 이제 와 "유감"

## 재외동포청 인천서 출범 확정… 도, 어제 유감 표명
## "공항공사·마사회 등 더 큰 공공기관 제주로 이전을"
## 유치과정선 수수방관… 뒷북 대응에 비난 여론 비등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를 떠나 인천에서 청으로 승격해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제주도정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뒤늦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규모가 큰 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치 과정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나며,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또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을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담 기구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사와 법무 등 민원 기능까지 더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이 된다.

재외동포청 유치전에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인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그동안 제주에선 50여 개 자생단체가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 운동본부'를 꾸려 '이전 반대' 활동을 벌여 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 등도 재외동포청의 제주 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처럼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 경쟁에 뛰어든 도민사회와 달리, 그간 제주도정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며 온도차를 보였다. 제주도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치를 주장하거나, 존속을 건의하는 공문을 정부로 발송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인 오영훈 도지사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오 지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도정질문 등의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질문에 대해 "재외동포청의 설립 배경과 취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청이 가게 됐을 때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을 제주에 유치한다고 해서 제주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맹지 농로 개설 조례안' 공청회… 2면 / 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신설… 4면

**꽃양귀비의 화려한 유혹** 9일 제주시 한림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핀 꽃양귀비를 구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자치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하여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포럼·예산정책협, 현안 절충 기회로"

## 윤 대통령 외교 성과 바탕 제주포럼 참석 가능성
## 6월 예산정책협의회서 여당 현안 협조 이끌어내야

청으로 승격한 재외동포재단의 이전으로 대체 기관 유치 등 제주 현안 절충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개최될 제주포럼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윤 정부의 외교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외교 분야 성과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제주포럼 참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엔 윤 대통령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제주포럼 참석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 제주포럼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고, 세계 각국 저명인사가 참여하며 국회 차원의 참여도 이뤄지는만큼 참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동안 제주를 방문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윤 정부의 공약 이행과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정부의 공약에 따라 청으로 승격된 재외동포재단은 인천으로 이전이 확정된 반면, 윤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었던 관광청 설립 및 제주 배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타 기관 제주 이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 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공적인 자리를 통해 절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북과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각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부터 가동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와 오는 6월 26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주요 현안 예산은 물론, 재외동포재단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의 제주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도, 2공항 주민의견 이달 말까지 연장 접수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아 9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3월9일부터 5월8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기간 접수한 내용과 도민경청회 내용 등을 정리해 내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습니다

**제주4·3사건(1947년 3월 1일 ~ 1954년 9월 21일) 당시 2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2,53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추진을 위하여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희생자들을 찾고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 명단**

**〈제주읍〉**
강승국康承國
조기홍趙基弘(내도)
강정수姜貞洙(노형)
고순기高順起(노형)
김재규金在奎(노형)
문태희文泰熙(노형)
양진옥梁珍玉(노형)
박태언朴太彦(노형)
현인표玄仁杓(노형)
고기우高棋宇(도두)
박옥선朴玉善(도두)
안선화安善花(삼도)
정창립鄭昌立(삼양)
김봉추金鳳秋(아라)
진병규陳秉奎(아라)
김시종金時宗(영평)
김영순金永順(영평)
부운선夫云善(오등)
강천종康千宗(오라)
박제식朴濟湜(오라)
이태준李泰俊(오라)
정鄭/유순여劉順如(용강)
김의봉金義奉(이도)
김천중金天中(이도)
이봉하李奉河(이도)
진경수秦景洙(이도)
김광수金光水(일도)
김을생金乙生(일도)
고일순高日順(해안)
김택지金澤智(해안)
송두옥宋斗玉(해안)
김두길金斗吉(화북)
안상준安相準(화북)
유대인俞大仁(화북)
김진현金辰鉉(화북)
강태오姜泰五(회천)

**〈조천면〉**
김용생金龍生(대흘)
고재훈高在訓(선흘)
홍옥례洪玉禮(선흘)
이석우李錫雨(신안)
김태옥金太玉(와산)
안동군安東君(와산)
강봉원姜奉元(와흘)
신오봉申五奉(와흘)
고양문高良文(조천)
김종인金鍾仁(조천)
김대우金大祐(조천)
이윤정李允貞(조천)
한갑생韓甲生(조천)
김동민金東玟(함덕)

**〈애월면〉**
강평기姜平基(상귀)
강규인姜奎仁(어도)
김명생金明生(어음)
안세홍安世洪(어음)

**〈한림면〉**
고시천高時千(금악)
양태호梁泰鎬(동명)
김병호金秉鎬(명월)

**〈추자면〉**
이영식李永植

**〈서귀면〉**
오군보吳君補(동홍)
오태표吳泰杓(동홍)
고의광高義光(상효)
김명종金明鍾(상효)
오종화吳宗化(서귀)
문복남文福南(중문)

**〈대정면〉**
이원석李元石(무릉)
강상근姜尙根(신평)
송윤옥宋允玉(영락)

**〈남원면〉**
강주진康凋珍(남원)
현영일玄英一(남원)
홍창부洪昌富(남원)
조병식趙柄植(신예)
이경화李京花(의귀)
정명순鄭明順(의귀)
강태욱康泰旭(태흥)

**〈안덕면〉**
강문송姜文松(상천)
오봉춘吳奉春(서광)

**〈성산면〉**
김춘생金春生(신풍)

**〈표선면〉**
김경선金庚善(가시)
김우규金禹奎)(가시)
김인보金仁保/김인(가시)
김영삼(金永三)/김화(禾)삼(가시)
오용주吳容柱(가시)
문창생文昌生(표선)

**〈도 외〉**
김동식金東植(경상북도 의성군)
노영근蘆永根(전라남도 함평군)
정창근鄭昌根(전라남도 함평군)
오자현吳子現(충청북도)
이윤주李潤周(충청북도 단양군 )
김중전金仲銓(평안북도 구성군)

□ 기 간 연중 □ 대 상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찾지 못한 희생자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82)064-710-8442~4, 8458) □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 본 명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상 기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지역 등 기초자료가 실제 인물과 상이할 수 있음 ⊙